



“많이 컸네, 우리 손녀” 추석을 이틀 앞둔 11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로 마중을 나온 할머니가 오랜만에 만나는 손녀들을 안아주며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추석, 연휴 첫날 비 소식 빼고 날씨 무난

추석 제주는 연휴 첫날인 12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난한 날씨가 예상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2일은 기압골에 의한 남풍과 동해상고기압에 의한 동풍이 수렴되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산지와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10~40mm의 비가 내리겠다”며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동부지역과 산지는 구름 많겠

다. 따라서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보했다. 아울러 14일과 15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추석 당일 월출 시간은 오후 6시 35분이며, 달이 가장 높이 뜨는 남중(南中)은 자정을 조금 넘긴 14일 0시14분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총선 D-7개월... “추석 민심을 잡아라”

민주당 5연승 도전·야당 고토 회복 세대결 본격 3개 선거구 20여명 거론 속 옥석 고르기 ‘스타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로 후보자 공천과 지역공약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야당 및 후보별로 정책홍보나 얼굴알리기 등을 통해 민심을 살필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제주지역의 내년 4·15 총선은 민주당의 5연승 여부와 보수 야당의 고토 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04년 선거(17대)를 시작으로 4회 연속 완승을 거뒀다. 2008년 선거때 한나라당(자유한국당)에 완패했을때도 제주는 사수했다. 이에 맞서는 야당들은 미흡한 정부여당의 지역현안 해결 등을 비판하며 대항마로 나설 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전략에 제주 민심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귀성객들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돼 뜨거운 여론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 3개 지역구에서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주자는 20여명이다. 출마를 선언한 예비주자도 있지만 정당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이 5선 고지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시갑 선거구는 도내 최대 상권과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연동·노형동이 포함돼 유권자가 가장 많다.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규모가 큰 애월읍도 이 선거구에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의 아성에 민주당내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김태석 도의회의장, 박원철 도의원, 박희수 전 도의회의장, 오옥만 전 도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야권에서는 구자현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 고병수 정의당 도당위원장이 나설 태세다. 김영진 도관광협회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고경실 전 제주시장의 출마설이 있다.

제주시를 선거구는 이도, 삼화, 아라지구 등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 서면서 유권자층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곳이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김희현 도의회 부의장과 김경학 도의회 운영위원장, 추석이후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진 부승찬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대결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선 경력의 김우남 전 국회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예선주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영희 제주시를 당협위원장과 김인철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입당을 고려하

고 있는 부상일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사임의사를 밝힌 안동우 도 정부부지사도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다.

가장 큰 이슈인 제2공항문제를 안고 있는 서귀포시 선거구는 현역인 위성곤 의원이 재선 도전에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위성곤 의원에 맞설 당내 후보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삼일 자유한국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20대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든 강경필 변호사도 재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부위원장 역시 후보군에 있다.

전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인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과 무소속 후보로 남아 있는 이경용 도의원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어촌뉴딜 300’ 정부 설득 가능할까

도, 11개항 사업 신청... 재검토 받은 계획서 제출 전국 250곳서 신청 치열 경쟁... 당위성 확보 과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해양수산부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에 도내 11개항(港)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날 제주도재정심의위원회에서 특색 없는 계획으로 재검토 의견을 받은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 설득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촌뉴딜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지역의 사회·문화·경제·환경을 유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신청지역은 고내항·세화항·북촌항·용수항·목리항·하우목동항 등 제주도 6곳과 태흥2리항·온평항·신산항·신청항·하호항 등 서귀포시 5곳이다.

신청 예산은 총 1257억4300만원이다. 1곳당 많게는 155억9300만원(우도면 하우목동항 권역), 적게는 102억원(효돈동 하호항)이 책정됐

으며, 정부 심의와 조정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지원율은 국비 70%·지방비 30%다.

그러나 각 항별 계획서는 이미 제주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는 의견을 받고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보완 없이 정부에 제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20년도 어촌 뉴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당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100곳 선정에 250곳(58개 시·군·구)이 접수, 2.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2.04대1(70곳 선정에 143곳 신청)보다 늘어난 수치로,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민·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9~10월 서면평가와 9~11월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 12월 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지 면 안 내

- ▶특집/제21대 총선 누가 뭐냐... 3면
- ▶연휴 잊고 제주 지키는 사람들 ... 5면
- ▶특집/추석연휴 가볼만 한 곳... 9면
- ▶특집/추석연휴 민속·마을행사... 10면
- ▶기획/한라에서 백두까지... 11면
- ▶기획/건강-임신 중 예방접종... 12면
- ▶특집/추석연휴 제주 극장가... 13면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한라일보사 임직원 일동 / 13~15일 휴간입니다

건강한 이웃을 꿈꾸는
탐동365일의원

저희 **탐동365일의원**은 **오전 9시부터 밤11시까지 연중무휴**로 진료하며, 요즘 생긴 유사 365의원들과는 상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탐동365일의원**은 도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탐동365일의원 임직원 일동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50730-증-75693호

풍성한한가위 가족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

탐동365일의원 **진료시간** **연중무휴**
오전 9시 ~ 밤 11시 탐동 이마트 옆 **T.(064)756-36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탐동로 24